

**여성가족부·교육부**  
**2016년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**

안녕하십니까?

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‘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’를 실시하고, 인터넷·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**개인·집단상담, 치유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**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진단조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K-척도, S-척도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인터넷,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정도를 측정하며, 이용 정도에 따라 **일반, 주의, 위험사용자군** 등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.

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**스스로 인터넷,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**, 조사 결과 나타난 주의 및 위험 사용자군 학생에 대해서는 **부모님의 동의를 거쳐**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의 **사용방법 지도 및 전문기관의 상담치료, 치유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**를 지원합니다.

우리 학교에서도 3~4월 중 학교 전산실을 이용하여 **진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임**을 미리 안내드리며, 조사 결과 **주의, 위험 사용자군**에 해당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“**상담치료 지원**” 사항 안내 및 “**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동의서**”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또한, 검사 결과 및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6. 4 . 8 .

군 산 동 고 등 학 교 장      송 세 경